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우세영 알렉시오 (1845-1866)



우세영은 황해도 서흥(瑞興) 향교 마을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우연히 알게 된 김요한 회장의 권면으로 관직의 뜻을 버리고 한양으로 가, 정의배에게 교리를 배우고 장 베르뇌 주교에게 세례성사를 받았다. 이후 부모의 심한 반대를 인내로 참아 낸 그는 결국 가족들을 입교시켰고, 신앙생활을 위해 평안도 논재로 이사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초기인 2월 16일, 우세영은 이웃 마을 고둔리 공소에서 유정를 등 5명의 교우와 함께 체포되었다. 하지만 평양 감영에서 혹독한 고문을 못 이겨내고 배교하면서 석방되었다. 이내 크게 후회한 그는 다시 스승 정의배를 만나러 서울에 갔는데, 스승은 이미 체포된 뒤였고, 그 집을 지키고 있던 포졸들에게 천주교 신자임을 자수하면서 붙잡혔다. 같은 해 3월 11일, 우세영은 프티니콜라 신부, 푸르티에 신부 그리고 스승 정의배와 함께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당시 22세의 젊은 나이였다.

성화_장공선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3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38(37), 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신명 6, 2-6

화답송 시편 18(17), 2-3, 7, 34, 44-45과 51(5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히브 7, 23-28

복음 환호송 요한 14, 23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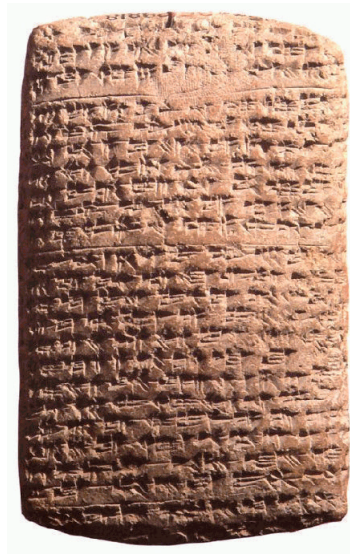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마르 12, 28, 34-34

영성체송 시편 16(15), 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하느님 사랑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출토된 서신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시나이산 아래 집결하였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당신은 그들의 하느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다만 과거 아브라함과의 계약 때는 이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겐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준수를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 일종의 선행상처럼 하느님 앞에서 증명한 충심에 대한 상급으로 계약이 내려진 것(창세 15,6; 느헤 9,8)인 데 비해, 이스라엘은 무상으로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하느님과 계약을 체결한 까닭에 이후 자신들의 충심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여러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때 주어진 율법 가운데 으뜸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신명 6,5)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레위 19,18)입니다.

이렇게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는 사랑을 율법으로 규정하지만, 사실 사랑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증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윗집 가족을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굳게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즉각적인 감정 이상의 ‘함양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본 듯합니다. 레위 19,17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역시 노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뜻일 터입니다. 그런데 이웃은 눈에 보이므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랑을 키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려고 오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애썼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려고 요리도 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도 쓰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영적 의미를 우선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단지 몸에 밴 관습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제정된 고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점을 이해하는 데는 이집트의 아마르나(Arna) 유적이 도움이 줍니다. 아마르나에서는 옛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를 오간 서신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가나안의 봉신 국가들은 ‘주군 파라오를 사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임금 에사르 하돈과 관련된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에사르 하돈은 봉신 국가들에게 황태자인 아슈르바니팔을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말하자면, 고대 근동에서 사랑은 ‘충성’을 뜻하는 일종의 관용어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사랑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해 애절한 감정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한결같은 충심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계약의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7장 새로워진 만남의 경로 ② - 평화의 예술과 건축술

회칙 「모든 형제들」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쇠신된 만남과 평화의 길을 개척하려면 마땅히 평화의 일꾼이 있어야 하며, 그 일꾼에게는 속죄의 기억을 단련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에 충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회칙이 말하는 ‘역사적 진실’이란, 이념이나 권력의 역학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인간 존엄)과 사회(보편적 공동선)에 실제로 남긴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의 일꾼에게는 “언제나 다른 이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사회적 일치에 공헌할 적절한 관점을 지녔음을 용인”(228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만 옳으며 나만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할 때, 우리는 다른 이를 억지(抑止)하려 들게 됩니다. 이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일꾼에게는 ‘근본적인 [사회의] 귀속 의식’이 함의(含意)하는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귀속 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화해와 상호 발전은 물론 공동선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화해 대신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고, 온전한 발전과 공동선 대신 개별적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이들에게는 사회(공동체)적 책임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회칙은 평화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닦기 위하여 국가들에는 ‘협상’, 사회 기관들에는 ‘건축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가

보여준 것처럼, 일부 사회 기관들의 무절제하며 배타적인 행보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불안을 고조시킵니다. 국가 차원이든 세계 차원이든 문화·정치·경제·과학·기술 분야의 기관들은 저마다 온전한 발전과 평화 구축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무능한 정치나 과잉 경쟁, 그 본령에서 이탈한 경제, 타락한 문화 그리고 오용된 과학과 그 기술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더라도 평화라는 건물을 짓는 데 불량 건축자재와 같습니다. 회칙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예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훌륭한 창작에는 작가의 창의력과 상상력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각고의 노력이 스며들어 있듯이,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의 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평화롭게 가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이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칙은 평화를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을 국가 운명의 중요한 주역으로 여길 수 있도록, - 특히 더 큰 책임을 맡은 이들이 - 그들의 존엄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지칠 줄 모르는 투신”(233항)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평화를 향한 새로워진 만남의 길’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와의 만남에서 출발하고 그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 최-우선성의 원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228-235항 참조) 🌀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실 그 길의 끝으로

집 밖으로 나가면 늘 다니던 길이 저를 맞이합니다. 그 길로 걷다 보면 익숙함이랄까요, 편안합니다. 낯익은 길이요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산티아고 여정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허다합니다. 화살표가 잘 되어 있지만 간혹 아리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길을 잃고 다른 데로 접어들면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마치 미로처럼 낯선 길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 때 이리 막막해지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땐 얼마나 막막할까요.

노환이든 병고든 사고든 한 생을 다하고 하느님께 가야 할 때, 우리는 그동안 걸어온 익숙한 길에서 전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옮겨가야 합니다. 함께 살던 소중한 이들과 이별하는 슬픔도 크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피고 이끌어주신 하느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그 하늘길 역시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요. 산티아고 여정에서처럼 화살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섭다고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빈손으로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걷던 익숙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나면 함께 기도해 주며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됩니다. 발병 초기부터 인연을 맺고 함께한 분도 있고, 누군가의 급박한 부탁으로 임종 때만 만나 뵈는 분도 있습니다. 오래전 힘든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저로서는 병상에 있는 환자와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겪어봐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도 그간 걸어왔던 익숙한 길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낯선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거기에 더 큰 고통이 있을까 봐, 얼어붙은 듯 오도 가도 못하고 세상 원망만 했었지요.

눈만 뜨면 눈물이 나서 내가 왜 이러나,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눈물의 이름은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것어요. 그리고 외롭고 두려웠던 길 위에서 정말 많은 분의 기도와 희생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서 가로수 같은 존재였고 천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투병의 삶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느님과 하늘의 성인과 천사들 그리고 지상의 천사들이 함께 걸어준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따스한 곳임을 그때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막막한 길 위에서 말이지요.

위령성월만 되면 파비올라 언니가 떠오릅니다. 9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며 언니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사는 동안 상처 입고 상실했던 것들과 화해하고, 관계 안에서 묶인 매듭을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낮게만 해주신다면 남을 위해, 특히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만, 아쉽게도 10월 2일 수호천사 기념일에 떠났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의 터널을 지나며 언니는 알았을 테지요. 하느님께 가는 길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그 길의 끝에는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어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



교구 소식

제9기 한국교회사강학회 수강생 모집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인 천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천주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장소 신앙교육원

일시 11/30(토), 12/1(주일) 09:30~17:30

인원 80명 (선착순)

회비 6만원

접수 11/12(화)까지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소식 참조

2025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일산분원

신청 2025년 2/19(수)까지 (선착순 100명)

장소 백석동 성당 대강당 (일산분원)

수업 저녁반 (수, 금 19:30~21:40)

과정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등록금 한 학기 40만원 (분납 가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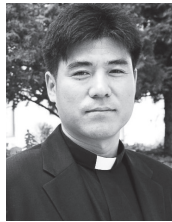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분야 건설공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회사

접수 11/22(금)까지

문의 031-850-1427 관리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소식 참조



기억합니다.

11월 9일은故 김도연 야곱 신부의
8주기입니다.

전신자 성경 읽기 10/27(주일)~11/2(토) : 루카 23,13-25



11/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공연

창작 뮤지컬 <김대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시성 40주년과
성인을 후보로 모시는 의정부교구의 설립 2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김대건>을 준비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역사의 진실과 희망,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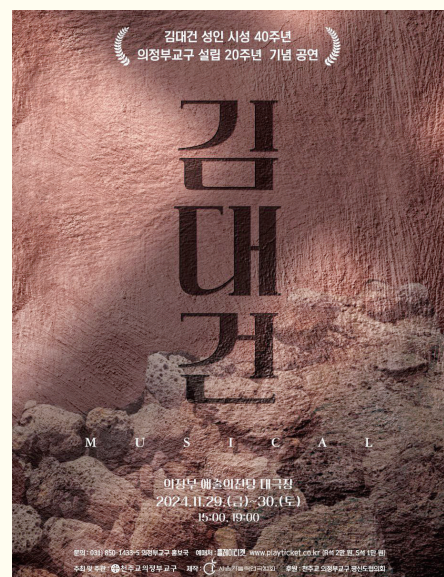
일시 11/29(금), 30(토) _ 15시, 19시 [총 4회]

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예매 플레이티켓 www.playticket.co.kr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미사 · 피정 ▶▶

군종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6(수)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집전: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와 군종 사제단
참석: 군 성당 신자 및 민간교구 신자
문의: 02-749-1921

8지구 영성피정

일시: 11/5(화) 12:30~16시, 금촌2동 성당
강의 및 미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문의: 010-9239-8926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8(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찬양과치유기도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1/9(토) 10시, 풍동 성당
11/16(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일시: 11/12(화) 14시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노고산 성지 월례미사

일시: 11/7(목) 11시 [매월 첫 목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성 이나시오 성당
문의: 02-705-8161 교목처
※ 미사 후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피정

1차: 2/14(금)~15(토)
2차: 2/15(토)~1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1/5 배갑진 신부, 11/12 신교선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11/15(금)~18(월), 12/20(금)~23(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12/6(금)~9(월),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우기

날짜: 12/6(금)~9(월)
장소: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주제: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비용: 42만원 (효소비 5일분 포함)
문의: 010-9363-7784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11/5(화), 12/3(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추자도포함: 11/25(월)~28(목)
자연순례: 11/21(목)~23(토), 12/1(주일)~3(화),
12/6(금)~8(주일)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4(목)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들
회비: 1인 3만원 (식대 포함)
지도: 김경진 베드로 신부
준비: 미사 준비, 묵주, 개인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성가정 영성 대피정: 11/13(수) 12:30~17시
송봉모 신부, 한철호 신부,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장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회비 1만원)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1/16(토) 12:30~17시, 윤민재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일정: 매주(금) 21시 ~ (토) 03시
강사: 전국 유명 강사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시 출발)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9:2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미사

일시: 11/8(금) 14시
장소: UN군 화장장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
주최: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추자도포함성지순례: 11/24(주일)~27(수)
생태순례: 12/7(토)~9(월)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한라산눈꽃산행: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11/15(금)~17(주일), 12/6(금)~8(주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교육 · 모집 ▶▶

오남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경력자 우대)
서류: 자기소개서, 본당신부확인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접수: 채용 시까지
방법: 우편 접수, 이메일 onam1@uca.or.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둘,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노년을 의미있고 충만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프로그램
날짜: 11/11(월)~25(월), 12/9(월)~16(월)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회비: 1주_75만원, 2주_150만원
문의: 010-7451-9707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8(금)~22(금)
문의: 054-851-3021~2, ipsi.csj.ac.kr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정기모집

대상: 의정부교구에 교적이 있는 만 60세 미만 교우
연습: (목) 20시, (주일) 교중미사 전
오디션: 성가 1곡
문의: 010-6802-8014 단장
010-4231-8918 총무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11/25(월)~12/5(목), 전형일: 12/14(토)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설립 60주년 기념 로마 방문

날짜: 5/14(수)~22(목) / 회비: 1인 480만원
대상: 초등 3~6학년 (성인 보호자 1명 동반 가능)
활동: 교황님 알현, 교황청 방문, 이탈리아 성지 순례
문의: 02-2268-7103, www.pmsk.net
※ 일정과 회비는 변동 가능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장소: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부천)
대상: 개인, 소그룹 (주1회 면담)
문의: 010-2029-0335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장
시스티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
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
국악·양상블(그레고리오성가·성악·
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접수: 11/1(금)~22(금)
장소: 최양업홀(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과정: 3개월 수업 (12월~2월)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회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남녀 평신도
접수: 11/30(수)까지
문의: 010-5399-3371, 010-9572-8282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11/16(토) 19:30~21시
장소: 정발산 성당 강당
주제: 이주의 시대, 난민은 누구인가?
문의: 031-948-8105~6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1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안내 · 기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evergreentc.modoo.at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2025년 3/30(일) / 회비: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세계 3대 성모발현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신부님 동행
날짜: 1/24(금)~2/2(주일) [9박10일, 설연휴]
문의: 02-2258-8983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보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 4일 / 문의: 010-3645-9028

한티 가는 길 - 도보순례

날짜: 12/18(수)~20(금) [2박3일]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상센터
강사: 류 에프렘 수사 / 회비: 25만원
문의: 010-6791-0071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2/12(수) 3대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2/24(월), 3/3(월) 출발 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1/17(주일),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1/15(수),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3/26(수) 이태리 일주 (9일, 419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3(금)~14(수)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13(월)~24(금) 성모발현지 피정 (475만원)
1/26(주일)~2/6(목)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3(월)~14(금) 발칸반도(메주그리예) (465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0(월) 이탈리아 (13일, 회년 전대사)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금),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대상	문 의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상시 상담가능)	010-9199-4995

보편 지향 기도

주일 미사에서 신앙고백(신경)이 끝나면 보편 지향 기도가 이어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에서는 “시대의 변천으로 없어졌던 어떤 것들도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 교부들의 옛 규범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50항)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여 년 이상 미사 전례에서 잊혔다가 복구된 기도가 있는데, 바로 보편 지향 기도입니다.

초세기 문헌에서는 이 기도가 “공동 기도”(oratio communis) 또는 “신자들의 기도”(oratio fidelium)라고 나옵니다. 공동 기도는 신자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기도라는 뜻이고, 신자들의 기도는 과거 말씀 전례가 끝나면 예비자들은 돌아가고 ‘세례받은 신자들만’ 남아서 이 기도를 바쳤기에 붙은 명칭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보편 지향 기도라는 명칭이 통용됩니다. 이 기도가 다시 복원된 이유는 모든 신자가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당신 자신을 구원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신자들이 주체가 되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단지 전례에 수동적으로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구원에 힘쓰다는 보편 사제직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보편 지향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하느님을 향한 간청** : 이 기도는 직접 성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며,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성모님과 성인들은 기도의 중재자이기에, 그분들에게는 이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기에, 그 성격은 청원 기도입니다.
- ② **보편적 선** : 이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보편적 선입니다. 때로는 지향이 미사에 모인 사람이나 지역교회에 관한 것일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성격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 ③ **교우들이 바침** : 몇몇 봉사자가 바치는 기도예 교우들은 “아멘.”이 아니라,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로써 모든 이가 기도의 주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주님, 사랑을 베풀어주소서.” “주님,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위령 미사 때)라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일반적으로 ① 교회, ② 위정자와 세상 구원, ③ 도움이 필요한 이들, ④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바칩니다. 물론 견진, 혼인, 장례 때처럼 특별한 미사에서는 기도 지향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이때도 최소한 보편적인 내용이 한 가지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주례 사제는 보편 지향 기도의 시작에 간단한 말로 신자들이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마지막에는 끝맺는 기도를 바칩니다. 모든 이는 일어선 채 이 기도를 한마음으로 바칩니다. ☪